

광주시, 노면전차 '트램' 추진... 실현 가능할까

1단계 농성역~터미널~캠스필드...사업비 720억·2026년 개통 예정
"지하철 소외지역 연결" "혼잡도로 2~4차선 점유 효과있나" 엇갈려
트램 건설비 치솟아 대구 건설계획 철회하고 부산과 대전도 고민 중

민선 8기 광주시가 의욕적으로 추진중인 친환경 교통수단 '트램(Tram-레일 위 노면전차)' 도입을 놓고 지역 내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광주시는 시민의 교통편의를 위해 도시철도 소외지역을 중심으로 무궁해-친환경 교통수단인 수소트램을 연결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일부에선 가뜩이나 비좁은 혼잡도로 구간에 2~4차선을 점유하는 트램 설치가 적절하느냐는 반응이다.

24일 광주시와 새로운 광주시대 준비위원회(민선 8기 인수위) 보고서 등에 따르면 트램은 강기정 광주시장이 후보시절부터 의지를 밝혀온 사업이다. 이를 위해 시는 이번 민선 8기 첫 조차개편에서 군공항교통국 광역교통과 내에 '철도 트램정책팀'을 신설하고, 트램 사업관련 용역비 1억원을 올해 추경예산에 반영해 사업을 공식화하는 등 강한 추진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 광주시의회는 24일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트램 사업과 관련, 시민 공감대 형성과 경제성 문제 등을 이유로 들어 용역비 관련 예산안 심의를 다음날로 연기했다.

시는 최근 국민의힘과의 호남권 예산정책협의회에서 트램건설 국비지원을 건의했으나 거부당하자, 시 자체 예산으로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강 시장도 최근 취임 후 기자단과 첫 간담회에서 "(국민의힘측에 제안한) 트램노선은 광주 도심내 주요거점을 연결하는 것으로, 사업 예산은 최대 1000억원 정도"라며 "시 자체 예산으로라도 추진하는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시장이 이처럼 트램 건설에 의욕적인 것은 트램이 지닌 여러 장점 때문이다. 트램은 우선 도시철도의 장점인 친환경성과 버스의 장점인 접근성을 동시에 갖고 있다. 또 일부 교통전문가들은 트램이 도시공간구조 측면에서 자동차가 점유한 도시 공간을 제한하도록 하는 주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주장도 내놓고 있다. 경제적 측면에서도 잇점이 있다. 기존 도로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건설비는 물론 운영비도 도시철도-경전철 대비 30~50% 수준에 불과한 탓이다. 여기에 유럽 등의 사례처럼 도심에 누비는 트램은 관광자원 효과도 있으며, 고품화 시대를 맞아 노인들의 대중교통 편의제공에도 효과적이라는 분석도 있다.

이 같은 기대효과를 기반으로 민선 8기 인수위가 광주시에 제안한 트램 사업은 크게 1, 2단계로 나뉜다. 1단계는 도시철도 1호선 농성역-신세계백화점 및 중합버스터미널-전방-일신방직-기아 챔피언스필드 야구장 등 2.6km 노선이다. 총 사업

비는 720억원 정도이며, 운행시간은 25km/h 기준 6분이다.

시는 1단계 사업의 경우 궤도운송법을 활용해 자체 사업으로 진행하면 2026년 개통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광주시는 일단 '도시철도망구축 계획 수립 용역' 내에 트램건설에 따른 타당성 등을 추가하기로 하고, 민선 8기 첫 추가경정예산에 관련 용역비 1억원을 반영한 상태다. 궤도운송법에 따르면 사업허가는 기초단체장이 하는 대신 전액 시예산을 투입하면 되지만, 국비 60%를 지원받기 위해선 국토교통부장관이 사업허가를 지닌 도시철도법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상당 기간이 소요될 수 있다.

2단계는 2031년 개통을 목표로 광주역-신안동-기아챔피언스필드야구장-동림-극락강역-월곡-우산-송정역 등 14km구간을 잇는 구상이다. 운행시간은 28분 정도 예상된다. 2단계는 7000억원대의 사업비가 예상되며, 국비반영 사업으로 진행된다.

이와 관련해 광주시 관계자는 "인수위 제안 내용 등을 바탕으로 트램 건설 관련 장단점과 재정분석 등을 심도 있게 살펴보고 있는 단계"라며 말을 아꼈다.

하지만 트램 개통을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광주대표 혼잡도로로 꼽히는 1단계 사업구간의 적정성을 문제삼는 목소리가 높다. 실제 광천사거리와 농성광장은 하루 교통량이 각각 12만, 14만대에 이를 정도로, 대표적인 혼잡도로이다. 임동오거리도 2021년 기준 하루평균 교통량이 11.76%(광주 주요 50개 교차로 중 교통량 증감률 3위)나 증가할 정도로 차량통행량이 급증하고 있다. 특히 트램이 최소 2~4차로를 점유한다는 점에서, 단선(1개 레일로 왕복)을 도입한다 해도 광천사거리 등의 교통대란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트램 건설비가 과거에 비해 급증하고 있는 점도 해결과제다. 대구시는 민선 8기 들어 비용 상승 때문에 기존 트램 계획 대신 모노레일로 바꿨고, 부산시도 트램 설계과정에서 사업비가 예상보다 배 이상 추가되자 고민에 들어갔다. 대전시도 2020년 7400억 원으로 예상했던 사업비가 최근 1조 4000억원을 넘으면서 사업에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 트램 건설비는 2020년 기준 km당 300억원대에서 현재 500억원대까지 치솟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상황을 감안한 듯 흥준표 대구시장은 최근 "트램은 비경제적이다. 서울은 50년 전에 폐지했는데, 다시 부활시킨다는 것은 시간을 거꾸로 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창농·귀농 고향사랑 박람회 24일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열린 '2022 창농·귀농 고향사랑 박람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전남 청년 농업인들이 농작물을 들어 보이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尹대통령 "미래 30년 한중협력 모색·시진핑 주석 대면 기대"

한중 수교 30주년 메시지
시진핑 "전략적 소통 강화"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향후 30년의 한중관계 발전을 위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대면해 협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한중 수교 30주년인 이날 서울과 베이징에서 동시 개최된 수교 기념행사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을 통해 이런 메시지를 내렸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30년간 다양한 분야에서 비약적으로 발전한 한중 관계를 평가하면서 지난 3월 5일 시진핑 주석과의 통화에서 논의한 대로, 상호 존중과 호혜의 정신에 기반해 미래 30년의 새로운

협력 방향을 모색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희망하면서 향후 30년의 한중관계 발전을 위해 시 주석을 대면해 협의할 수 있기를 기대했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이에 대해 시진핑 주석은 왕이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을 통해 "윤 대통령과의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고, 수교 30주년을 새로운 출발점으로 하여 내실 있는 우호를 다져 나가기를 희망했다"고 대

통령실은 전했다.

시 주석은 "한중 양국은 오랜 기간 우호적 교류를 이어온 이웃 국가로서 수교 이래 30년간 호혜적 협력을 통해 개방과 포용을 견지하면서 전방위적으로 관계를 발전시켜왔다"라고도 평가했다. 아울러 "대변력과 세기의 팬데믹(코로나)이 교차하는 중대변 시기 한중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단결·협력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사랑과 감사의 68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2]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변호사 개업인사

저는 이번에 전주지방검찰청 부장 검사(사법연수원 29기)를 끝으로 검찰을 떠나 변호사로 새롭게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쌓은 실무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2022. 8.

변호사 신현성 올림

◇ 주요 학력 및 경력 ◇

- 중앙대학교 법과대학(92학번) 졸업
- 미국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USC) 방문학자
- 제39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제29기 수료
- 광주지방검찰청 검사
- 광주지방검찰청 해남지청 수석검사(특수 전담)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별수사3부 검사
- BBK(이명박 특검법)특검 피검검사
- 장원지방검찰청 특별수사부 검사
-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수석검사(특수 전담)
- 서울북부지방검찰청 부부장 검사
-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형사1부 부장검사
- 전주지방검찰청 부원지청 형사3부 부장검사
- 전주지방검찰청 형사1부 부장검사
- 광주고등검찰청 부장검사

■ 업무개시: 2022. 8. 17 ■ 개업장소: 광주 동구 지산로 70, 동산빌딩 402호 ■ 대표전화: (062) 223-6200 팩스: (062) 223-6202

전라남도 SOC 르네상스 시대 실현!

사상 최초 전남 예산 11조원 시대 개막!
2022년 국고예산 8조원 돌파!
역대 최대 SOC 국가계획반영 쾌거!

전라남도